

악! 병살타에 쓰러진 호랑이



KIA 황금 찬스때마다 무기력한 타선

9회 역전 기회 무산... 내일 잠실 5차전



“9회의 아쉬웠던 반격, 잠실에서 끝낸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이브스와의 한국시리즈 4번째 대결에서 3-4로 패해 2연승후 2연패를 기록했다. KIA는 1-4로 뒤지던 9회초 2점을 뽑아 내며 추격전을 벌였지만 마지막 결정타가 부족했다. 1-4로 뒤지던 9회초 이용규의 대타로 들어선 차일목이 선두타자 안타를 만들며 마지막 추격의 기회를 만들었다. 최희섭의 연속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2루, 김상현이 삼진을 당한 뒤 이종범 마저 우익수 파울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면서 2사 1·3루가 됐다.

그러나 나지완의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2-4를 만든 KIA는 이재주를 대타로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재주의 볼넷으로 2사 만루,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3-4까지 쫓아갔지만 앞선 타석에서 홈런 하나를 포함, 3개의 안타를 터트렸던 이현곤의 마지막 타석이 볼볼에 그치면서 경기가 마무리 됐다. 결정적인 순간 터진 세 개의 병살타가 패인이었다. 1회초 선두타자 김원섭이 중전안타로 출루했지만 곧이어 장성호의 병살타가 나왔다. 이현곤과 김원섭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3회 1사 1·3루, 장성호의 두 번째 병살타가 나온 뒤 5회 1사 1루에서 세 번째 병살타가 나오면서 KIA는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4차전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5와 3분의 2 이닝동안 4피안타(1홈런) 2사사구 6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투수가 됐다. 삼진 두 개를 앞세워 삼자범퇴로 1회를 막

았던 양현종이 2회 2사에서 정상호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처음 주자를 내보낸 양현종은 다음 타자 박재홍에게 연속해서 볼 3개를 던지며 갑작스런 난조를 보였다. 결국 4번째 던진 직구가 높게 들어가면서 투런 홈런으로 연결됐다. 0-2로 뒤지던 5회 이번에는 정상호와 나주환의 2루타 2개가 나오면서 0-3이 됐다. 6회 이현곤이 팀에 첫 점수를 선물했다. 선두타자로 나온 이현곤이 채병용을 상대로 우월솔로홈런을 터트리며 1-3을 만들었다. 하지만 상대의 호수비에 막혀 추가득점에는 실패했다. 6회 원아웃에서 SK 좌익수 박재상이 이용규의 안타성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내며 KIA 추격의지를 꺾었다. 박재상은 7회초에도 김상현의 홈런성 타구를 외야 펜스 앞에서 점프해 잡아내는 등 두 개의 호수비로 KIA의 발을 묶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팀 감독 한마디

“문제는 방망이다”

◇조범현 KIA 감독 = 지금까지 초반에 점수가 안 났다. 그래서 초반부터 득점할 수 있도록 이용규도 빼고 타선을 짰는데 1·3회 찬스에서 장성호의 병살타로 득점을 못 낸 것이 아쉽다. 선발투수 양현종은 나름대로 잘

던졌다.

오늘 유동훈이 빗맞은 안타로 실점했지만 투수는 잘 견뎌주고 있다. 문제는 공격이다. 몇 경기 연속 초반에 선취점이 부족했는데 내일 하루 쉬고 훈련하면서 대비하겠다. 2승 2패로 점전을 벌이고 있는데 잠실에서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투수들 잘 던졌다”

◇김성근 SK 감독 = 후반에 점수를 주긴

했지만 선발 채병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우람 등 투수들이 잘 던져줬다. 정상호 다음에 7번(박재홍)에 찬스가 넘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대로 됐다. 아쉬운 것은 9회 2점을 줄 때 너무 쉽게 주고 나지완에게 맞은 것이다. 1차전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나지완에서 끝내지 못해 아쉽다. 어제 1승을 올리면서 선수들이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다. 3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평상심을 찾았다. 오늘 연습할 때도 선수들이 자연스럽고 재밌게 하더라.

팀은 졌지만 아주 특별한 무대

프로야구의 ‘큰 잔치’ 한국시리즈는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무대이다. KIA 유니폼을 입고 가을잔치에 참여하게 된 26명의 선수. 아무래도 큰 무대에 처음 발을 내딛는 선수들에게는 이번 무대가 더욱 특별하다. KIA의 신인투수 정용운은 19일 6회말 구원투수로 등판해 한국시리즈에 데뷔했다. 두 타자를 상대한 좌완 정용운의 성적은 1볼넷과 1탈삼진. 첫 타자 박재홍에게 볼넷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날 5타수 4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던 박정권을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올 시즌 4게임에 등판해 3과3분의 1이닝 동안 10.80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던 신인 정용운은 한국시리

즈 엔트리 ‘깜짝 발탁’에 이어 경기장을 찾은 부모님앞에서 한국시리즈 데뷔를 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노장 투수 이대진은 12년만에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1997년 한국시리즈에서 2승을 올리며 팀의 9번째 우승을 이끌었던 이대진은 힘든 재활과정을 딛고 다시 한 번 마운드에 우뚝 서서 1과 3분의 2이닝동안 피안타 없이 2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비록 팀이 6-11로 패하기는 했지만 선수단과 팬 그리고 이대진에게 모두 감격스러운 무대였다. 이대진은 “다시 한 번 한국시리즈에 마운드에 오르게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 시즌 14개의 홈런을 터트린 신인 안치

신인 정용운 한국시리즈 데뷔
노장 이대진 12년만에 KS 출전

홍도 한국시리즈 4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해 2루를 지키고 있다. 팀 타선이 공포 묶였던 19일 7회초에 터트린 안타는 안치홍의 한국시리즈 첫 안타이자 팀의 첫 안타였다. ‘큰 무대 체질’ 안치홍은 “한국시리즈라고 긴장되지는 않다”며 “오하러 큰 무대에서 뛰는 게 즐겁다”고 밝힐 정도로 가을잔치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큰 무대가 부담스러웠던 한국시리즈 초보자도 있었다. 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던 구본수는 등판 전 불펜에서 최고의 피칭감각을 보였다. 구위도 좋고 밸런스로 완벽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실전 무대에서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서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KIA-SK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3회초 안타로 진루한 KIA 김원섭이 장성호의 내야땅볼 때 2루에서 포스아웃된 후 나주환의 다리를 붙잡고 있다.

/인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야구 랭킹 쿠바-美-日 이어 4위

한국 야구가 국제야구연맹(IBAF)이 발표한 세계랭킹에서 4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다. IBAF가 20일(한국시간) 발표한 세계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850.76점을 얻어 아마추어 최강 쿠바(1천159.68점), 미국(1천51.32점), 일본(912.07점)에 이어 4위를 달렸다. IBAF는 지난 1월 기간 열린 각종 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바탕으로 각국의 세계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2008 베이징올림픽과 세계청소년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한국 야구는 1월 발표에서 3위를 차지했고 3월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준우승을 일궈 2위로 순위가 올랐다. 올해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해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지난달 유럽에서 끝난 IBAF 월드컵에서 8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점수가 많이 깎였

다. IBAF는 각 대회 우승팀에 50점을 주고 2~4위는 40점, 30점, 15점씩을 차등 배점한다.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에서 빠졌지만 권위가 가장 높은 올림픽과 WBC, 야구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각 점수에 4배를 곱한다. 올해 야구월드컵에서 쿠바를 10-5로 꺾고 우승한 미국이 4위에서 2위로 오른 것도 이 덕분이다. IBAF 세계랭킹은 미국 아칸소주 하딩 대학교에서 스포츠전문 디렉터로 일하는 스콧 구디가 고안했다. /연합뉴스

홍명보 올림픽 축구 사령탑 새 출발

200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8강 진출 패거리를 지휘했던 홍명보(40)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홍명보 감독이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고 20일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올림픽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별도의 기술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명보 감독이 U-

20 월드컵 종료와 함께 올림픽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은 U-20 월드컵이 끝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올림픽 예선까지이며 한국이 예선을 통과해 본선 16강에 진출하면 종료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홍 감독은 서정원, 김태영 코치와 신의손 골키퍼 코치,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 트레이



너 등 U-20 월드컵 때 호흡을 맞췄던 코칭스태프를 유입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으로 U-20 대표팀 감독 때보다 인상된

연봉을 받는 등 나은 조건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오는 12월19일 창원 축구센터 개장 기념으로 열리는 일본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경기 때 올림픽팀 사령탑으로 데뷔전을 치른다. /연합뉴스